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음 5월 26일)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전북도-강소성, 경제협력 '물꼬'

제2320호

송하진 도지사 중국 방문 당서기 · 성장 등과 면담 실리외교위한 보폭 확대 새만금 산단 5공구 개발 경협 활성화 방안 제안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26일부터 중국 강소성 공식방문에 나선 가운데 관광, 기업 투자 분야 등에서 실리외 교를 위한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양 지역은 '전 라북도-강소성, 함께 이룬 25년, 함께 여는 100년 이라는 주제로 공식행사, 전북 종합 홍보행사, 다양한 민간 교 류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

송 지사는 특히 당서기는 물론 성장 등을 잇달아 만나 양 지역의 교류성과 공유와 미래교류 확대, 동반성장을 위 장제협력 방안을 공식 제안하고 나

송하진 지시는 강소성에 도착하자마 자 러우친젠 당서기와 공식 환담 자리 에서 지난 25년의 교류를 기반으로 하 여 향후 상호 경제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송 지사는 이 지리에서 "2014년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중 경제협력의 무대 가 될 '새만금의 내부개발 속도' 가 문 재인 정부 들어 매우 빨라지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교류방문단은 중국 내 경제규모 2위 도시이자 전북도가 1994년 첫 외국 자매관계를 체결한 강소성을 방문해 동교국빈관에서 러우 친지앤 당서기를 만나 한중 경협 활성화 방안 제안 등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최근 중국의 10대 핵심산업인 '전기 자동차'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성장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와 지원 이 새만금에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 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먼저 양 지역이 힘을 모 아 전북도에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한중 산업협력단지인 새만금 지역을 한중 경협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 해 나가기 위해 새만금산단 5공구 공 동개발 활용을 제안했다.

송 지시는 또한 문화, 학술, 관광 등 다양한 인적 교류가 상호 경제협력, 투자촉진을 향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강조하면서 전북도-장쑤성 공동 투자 설명회 정례화 등 앞으로 더 많은 분 야에서 교류 확대의 길을 열어나가자 고 제시했다.

러우친젠 당서기는 송 지사의 양 지 방정부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명하며 새만금 산업단지 5공 구 공동투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어 떤 정책이 필요한지 적극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투자단을 구성해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송 지시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난 징도서관에서 개최되는 교류한마당 행시에 참석, 전북 알리기에도 적극 나섰다.

송 지사는 우정통 강소성장과 공식 환담을 갖고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양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 되길 바라면서 "올 9월 새만금에서 개 최되는 제2차 한중산단 협력 교류회에 많은 강소성 경제 관계자와 기업이 참 여해 실질적인 투자와 협력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 대표도서관 혁신도시에

도, 전주시 장동 기지제 수변공원으로 확정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480억원 투입

전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후보지로 '전주시 장동 혁신도시 기지제 수변 공원'이 최종 선정됐다.

전북도는 27일 전주, 군산, 정읍, 남원 등 4곳의 후보지별로 입지 적 정성, 개발 용이성, 즉시 착수 가능 성 등을 심사평가한 결과, 최종후보 지로 '전주시 장동 혁신도시 기지제 수변공원 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

전북도 대표도서관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80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1만2000㎡정도 규모이다.

주요시설은 자료실, 보존서고, 열 람실, 회의실 등이며 전라북도 차원 의 '14시군 195개 도서관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거점도서관이자 전 라북도가 시행하는 '도서관 정책의 실행기관' 으로서이 역할을 하게 된 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기지제수변공 원 부지가 호남고속도로와 국도대체 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잘 구축돼 타 시군과의 접근성이 좋고 콘트롤 타



전주시 장동 기지제 수변공원에 세워 질 전북도 대표도서관 위치.(빨간선으 로 표시)

워 역할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했다.

전북도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 도서관 타당성 사전신청과 행정안 전부 재정투자심사를 제출, 국비 를 확보해 2021년 착공, 2023년 도 서관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하고, 전북자존의 시대에 걸 맞는 학술적 토대를 함께 구축 하겠다" 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올 하반기 승진인사 내정 발표

#### 국장급 김미정 · 황철호 등 2명 과장급 15명 · 팀장급 47명 6급 이하 근속승진 포함 102명

전북도가 27일 올해 하반기 승진

인사 내정시항을 발표했다. 전북도가 이날 발표한 승진 인원 은 총 166명으로, 이중 국장급 승진 인사에 김미정 일자리정책관과 황철 호 예산과장 등 2명이 명단에 포함 돼 있다.

또한, 과장급 15명, 팀장급 47명이 승진 내정됐으며, 6급 이하는 근속 승진 1명을 포함한 102명이다.

국장급은 관리자로서 지도려, 통솔 려, 업무수행능력, 경력, 공로연수 전 잔여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적격자를 임용하고 조직의 화합 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모범이 되 는 자로 선정했다.

과장급은 중간관리자로서 조직의





김미정 정책관 황철호 예산과장

통솔 및 화합, 업무추진 능력, 경력, 전문성과 승진후보자 명부, 직무성과 평가결과, 공로연수 전 잔여임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용됐으며, 팀장급 이하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부서 간 균형, 양성 평등, 소수직렬 배려, 현직급 근속기간, 직무성과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용했다. /김진성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은행이 전주시가 한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발맞춰 올해 발간 예 정인 50년사의 일부를 전주전통한지 로 제작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북은행은 27일 전주시 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임용택 전북 은행장, 김성철 부행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기운데 전주전통한지의 보존 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 《관련시전 4면》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전북은행은 전주전통한지의 보존과 계승 및 한지 산업 발전을 위하여 향후 긴밀한 협 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 전북은행 50년사, 전통한지에 기록

전주시-전은, 한지산업 발전 협약 체결 금융업무 등 활용 · 판로확대 지원 앞장

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은행에 양질의 한지를 제공하는 행정적 협조 를 지속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전북은행은 금융업무 및 각종 행사에 전주전통한지를 적극 활용하고, 전주한지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전북은행은 자사의 임명장, 상

장 등을 전통한지로 사용하기 위해 최근 1500장의 전통한지를 구매했으 며, 이날 오전 전북은행 신규임용 직 원들에게 전통한지로 된 임명장을 처 음 전달하기도 했다.

전북은행은 또 올해 12월 창립 50주 년을 맞아 발간할 예정인 '전북은행 50년사 기록물'의 일부분에 전통한지 를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한지장이 만든 전통수록한지의 사용 분야를 확장시 켜 전통한지산업을 키우기 위해 공공 기관과 종교단체, 금융기관 등을 대 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시는 항토은행인 전북은행이 전통 한지 살리기에 동참한 만큼 향후 더 많은 금융권 기관들이 아름다운 전주 한지 사용과 한지산업 활성화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송효철기자

